

## 《史密簋》의 斷代와 銘文 연구\*

崔 南 圭\*\*

<目次>

I. 序論-斷代	3. 「藿不斨」
II. 銘文에 대한 고찰	4. 「廣伐東或齊白族土述人乃執
1. 「故(故)」자의 의미	毋寡亞」 구절에 대한 이해
2. 「會(會)」	III. 結 論

### I. 序論-斷代

《史密簋》는 1986년 陝西省 安康市 安康縣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王家壩에서 발견되었고, 현재는 安康 歷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명문은 9행으로, 모두 93자이며, 이 중에 合文 1자, 重文 2자이다. 《史密簋》는 왕이 대신인 史俗과 史密에게 長必로 출동하여 夷族을 물리치도록 한 내용이다. 서주의 역사와 管制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史密簋》가 발견된 후 많은 학자들이 명문과 단대에 대하여 고증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단대 즉, 청동기의 제작시기와 명문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본문은 먼저 《史密簋》의 시기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명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2.

\*\* 全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연구원

문 중 비교적 문제가 되는 「東征故南尸虜虎會杞尸舟尸翟不阨」과 「廣伐東或齊白族土述人乃執晷寡亞」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史密簋》의 단대에 대한 주장은 ‘共懿王時期’·‘宣王時期’·‘孝王時期’·‘懿王時期’와 ‘共懿孝王時期’說이 있다.

‘共懿時期’를 주장하는 학자는 李啓良의 《陝西安康市出土西周史密簋》와 吳鎮烽의 《史密簋銘文考釋》 등이 있다.<sup>1)</sup> 이들은 《史密簋》의 아가리가 안쪽을 향하고 둥근 밑받침대(圈足)가 있는데, 이는 西周中期 청동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며, 銘文에서 언급하고 있는 ‘師俗’(혹은 師俗父·伯俗父라고도 함)은 西周의 共王과 懿王 時期의 大臣으로, 이 이름은 《永盂》·《衛鼎》과 《南季鼎》에도 보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史密簋》의 입구 쪽에 장식무늬 모양 竊曲紋이 있고,<sup>2)</sup> 腹部에는 瓦紋이 있으며, 바깥 아래 부분에는 네모난 형태의 線紋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懿王 시기의 《王臣簋》·《楚簋》와 같고, 西周中期 후반에서 西周 말기에 유행하였다는 것이다.

‘宣王時期’說은 張懋鎔의 《安康出土的史密簋及其意義》가 대표적이다.<sup>3)</sup> 張懋鎔은 세가지 근거를 들어 宣王시기의 기물이라 하였다. 첫째, 기물의 복부 부분이 안쪽으로 내려가 있으며, 받침대 부분에는 네 개의 작은 다리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師寰簋》·《姪小簋》·《敵簋》 등과 상당히 비슷하다. 《師寰簋》는 宣王 시기의 기물이고, 《敵簋》는 厲王시기의

1) 李啓良, 《陝西安康市出土西周史密簋》, 《考古與文物》, 1989:3, 7쪽. 吳鎮烽, 《史密簋銘文考釋》, 《考古與文物》, 1989:3, 55쪽.

2) ‘竊曲紋’는 中國 古代青銅器의 장식 무늬 중 하나로, 옆으로 나란히 기와가 놓여 있는 모양의 장식무늬이다. 《呂氏春秋·適威》는 “周鼎有竊曲, 狀甚長, 上下皆曲, 以見極之敗也.(주나라 청동기에는 竊曲의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굽은 형상에다가 매우 길고, 위아래가 구부러져 있다. 이로써 극단적인 패망을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라 했다. 두 개의 곡선 고리가 서로 “S”形 모양으로 연결되어 무늬를 이루고, 가운데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눈(目)’모양의 장식이 있다. 이러한 무늬는 西周 中後期에 유행하였다.

3) 張懋鎔 等著, 《安康出土的史密簋及其意義》, 《文物》, 1989:7, 64쪽.

기물이다. 둘째, 주 장식 무늬는 竊曲紋이고, 특히 무늬 중간에 보이는 ‘눈’ 모양이 주변의 무늬와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伯晨鼎》과 비슷하며, ‘伯晨’은 ‘師晨’으로, 이鼎은 宣王 시기의 것이다. 셋째, 銘文의 字體로 보아 《師酉簋》보다 약간 늦고, 《師旃簋》보다는 이르며 《師寰簋》와 비슷한 시기이다. 넷째, 명문의 내용과 낱말들이 《師寰簋》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史密簋》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진 형태가 아니라 편평한 둥근 탁자형의 다리이다.

‘孝王時期’說은 李學勤의 《史密簋銘所記西周重要史實考》가 대표적이다.<sup>4)</sup> 李學勤은 《師振鼎》과 관련이 있는 청동기로 《蔡簋》와 《揚簋》가 있는데, 이들 명문의 字體는 모두 《史密簋》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孝王 時期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하였다. 또한 기물의 형태는 입구 아랫쪽에 竊曲紋 띠가 있고, 腹部에는 瓦紋이 있는데, 이러한 風格은 西周 말기 때까지 매우 유행하였고, 《史密簋》가 이러한 풍격의 선두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물을 孝王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懿王時期’說은 張永山 《史密簋銘與周史研究》의 주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주장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5)</sup>

첫째, 《史密簋》의 師俗이란 이름은 《師晨鼎》에서 ‘師俗’으로, 《師永盃》는 ‘師俗父’으로, 《五祀衛鼎》은 ‘伯俗父’로, 《南季鼎》은 ‘俗父’라 칭한다. 《五祀衛鼎》과 《南季鼎》은 共王시기에 속하고, 《師永盃》는 共王이나 懿王시기의 것이며, 《師晨鼎》은 懿王이나 孝王 시기의 것이다.

둘째, 《太平御覽》에서 언급한 周王의 位年 기간은 共王이 20년, 懿王이 25년, 孝王이 15년이다. 이들의 기년을 참고하여, 師俗이 《五祀衛鼎》의 共王 5년에서 《師晨鼎》의 孝王 3년까지 관리를 지냈다면 약 40세가

4) 李學勤, <史密簋銘所記西周重要事史考>,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1 :2, 5쪽.

5) 張永山, <史密簋銘與周史研究>, 《盡心集—張政烺先生八十慶壽論文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11, 187쪽.

되고, 만약에 그가 20세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共王 5년부터 共王 말년까지 관리를 지냈다면 약 35세가 되며, 懿王 말년까지 관리를 지냈다면 약 60세가 되고, 孝王 3년 까지라면 이미 회갑이 지났으며, 만약에 孝王 말년까지라면 70세가 넘는다. 따라서 나이로 보아 懿王과 孝王 초기 사이에 출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왕성히 활동한 시기는 懿王시기로 볼 수 있다.

셋째, 史寇라는 신분은 共王 때에 行政事務(《五年衛鼎》)를 보았고, 懿王 20년이 되어서야 이름 앞에 ‘師’자를 붙였다.<sup>6)</sup> 예를 들면, 《師永盂》가 있다. ‘師’는 금문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史密簋》의 시기를 懿王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共懿孝王時期’說은 王健의 《史密簋銘文與齊國的方伯地位》가 있다.<sup>7)</sup> 王健의 夏商周三代の 斷代工程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왕의 재위 기간은 共王이 23年, 懿王이 8年, 孝王이 6年, 夷王이 8年을 재위하여 네 명의 재위 기간을 모두 합하면 45年이다. 이러한 재위 기간으로 보아 ‘師俗’이 활약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共王에서 夷王 사이이고, 실질적인 문헌상의 자료로 보아 이 네 왕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 하였다.

위의 다섯 가지 주장은 斷代와 왕의 재위기간이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夏商周朝에 관한 斷代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sup>8)</sup> ‘夏商周斷代工程’이 2000年 《夏商周年表》를 정식으로 발표한 西周時期的 그 연대는 아래와 같다.

6) 姜文奎의 《從彝銘研討西周王年》(臺灣大屯出版社, 2001, 215쪽)에 따르면 穆王시기의 《虎簋蓋》에서 「師戲」라 하여 이미 「師」라는 관직 이름이 보인다.

7) 王健, <史密簋銘文與齊國的方伯地位>, 《鄭州大學學報》, 2002:2, 98쪽.

8) 예를 들어, 丁山은 夷王의 재위 기간을 3년으로 보는 반면, 董作賓은 재위기간을 46년으로 보아 43년의 차이가 난다. 朱鳳瀚 等著 <西周諸王年代研究述評>(朱鳳瀚 張榮明 編, 《西周帝王年代研究》, 貴州人民出版社, 1998)의 <西周諸王年代諸說一覽表>(432쪽)참고.

武王 BC 1046年 — BC 1043年 在位 4年  
成王 BC 1042年 — BC 1021年 在位 22年  
康王 BC 1020年 — BC 996年 在位 25年  
昭王 BC 995年 — BC 997年 在位 19年  
穆王 BC 976年 — BC 992年 在位 55年  
共王 BC 922年 — BC 900年 在位 23年  
懿王 BC 899年 — BC 892年 在位 8年  
孝王 BC 892年 — BC 886年 在位 6年  
夷王 BC 885年 — BC 878年 在位 8年  
厲王 BC 877年 — BC 841年 在位 37年  
共和 BC 841年 — BC 828年 在位 14年  
宣王 BC 827年 — BC 782年 在位 46年  
幽王 BC 781年 — BC 771年 在位 11年

그러나 제왕의 재위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연구자료이므로 잠시 ‘夏商周斷代工程’의 《夏商周年表》를 참고하기로 한다.

劉啓益은 《西周紀年》에서 共王시기의 標準器를 《三祀史遽簋蓋》·《五祀衛鼎》·《九年乖伯簋》·《十二年永孟》·《史牆盤》으로 보고, 「伯俗父組」의 기물의 단대와 관련된 이름은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sup>9)</sup>

共王:

《五祀衛鼎》- 邢伯·伯邑父·定伯·涼伯·「伯俗父」

《十二年永孟》- 邢伯·榮伯·尹氏·「師俗父」·遣仲

共懿時期:

《南季鼎》-- 「伯俗父」

懿王:

《三年師晨鼎》-- 「師俗嗣」

9) 劉啓益, 《西周紀年》, 廣東教育出版社, 2002, 277쪽 참고.

劉啓益의 주장에 따르면, 共王시기와 懿王시기에는 모두 ‘師’라는 관직이 있었고, 또한 ‘夏商周年代表’에 의하면 共王의 在位기간은 23년이고, 懿王의 在位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師俗이 20세부터 군사 일에 참여하였다면 懿王 말년에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또한 穆王시기에는 齊나라의 국력으로서는 周나라를 도와 출정할 수 없었고,<sup>10)</sup> 夷王때에는 周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sup>11)</sup> 《史密簋》에서 언급한 ‘齊나라가 周나라를 도울 수 있는 시기’는 懿王에서 孝王 때이다. 따라서 劉啓益의 주장과 역사적 사건을 참고해 볼때, 共懿王 양대에 걸쳐 활약한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吳鎮烽은 “從上列銅器銘文看, 師俗主要活動于西周中期的共王懿王之世.(이러한 銅器의 명문으로 보아 師俗은 西周中期 共王과 懿王시기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다)”라 하였다.<sup>12)</sup> 아래와 같은 《史密簋》의 장식무늬 竊曲

10) 《後漢書·東夷傳》:「後徐夷僭號, 乃率九夷以伐宗周, 西至河上. 穆王畏其方熾, 乃分東方諸侯, 命徐偃王主之. 偃王處潢池東, 地方五百里, 行仁義, 陸地而朝者三十有六國. 穆王後得驥騮之乘, 乃使造父御以告楚, 令伐徐, 一日而至. 於是楚文王大舉兵而滅之.(후에 徐夷는 天子라고 칭하고, 九夷族을 이끌고 황하 서쪽 유역까지 宗周를 쳐들어 왔다. 穆王은 이들 세력을 두려워하여, 東方의 여러 諸侯들을 나누어 徐偃王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였다. 偃王은 潢池의 동쪽에 거주하였는데, 그 땅이 五百리나 되었으며, 仁義 政治를 하자 陸地에서 36개국이 조건하여 왔다. 穆王은 후에 赤驥와 騮耳를 얻어, 造父에게 이를 타고 하루 만에 楚나라에 가 徐國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楚 文王은 대군을 이끌고 徐國을 멸망시켰다)」.

11) 《史記·齊世家》:「紀侯潛之周, 周烹哀公而立其弟靜, 就是胡公. 胡公徙都薄姑, 而當周夷王之時. 哀公同母少弟山怨胡公, 乃與其黨率營丘人攻殺胡公而自立, 是爲獻公. 獻公元年, 盡逐胡公子, 因徙薄姑, 治臨淄.(哀公 때, 紀侯가 周王에게 거짓 참언하여 周王이 哀公을 솔에 넣어 삶아 죽였다. 그리고 그의 동생 靜을 齊君으로 재위시켰는데, 이가 곧 胡公이다. 胡公은 후에 薄姑로 천도하였고, 이때가 周나라 夷王이 재위한 해이다. 哀公의 같은 어머니 출생의 동생 山은 胡公을 원망하여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營丘 사람들을 이끌고 가 胡公을 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齊君이 되었는데, 이가 곧 獻公이다. 獻公 元년에 胡公의 아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 기회를 빌어 薄姑에서 臨淄로 천도하였다)」.

紋은 서주 중·후기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본 논문은 《史密簋》를 共懿王 시기의 것으로 보기로 한다.

## II. 銘文에 대한 고찰

《史密簋》의 지명, 종족명과 군대의 명칭은 학자마다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명문의 예정(隸定)이나 그 뜻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族名 혹은 地名에 대해서 李學勤의 《史密簋銘所記西周重要史實考》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기로 하고,<sup>14)</sup> 지면 관계상 본문에서는 비교적 문제가 되는 「故南尸虜虎會杞尸舟尸藿不阡廣伐東或齊白族土述人乃執罍寡亞」 구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 구절은 전체 銘文 중 가장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기도 하며,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1. 「故(故)」자의 의미

「故(故)」자는 ‘연합하다’·‘토벌하다’나 ‘맞추다(만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하며, 「故」자가 목적어로 취하는 부분이 「南夷」인지 혹은 그 뒤 「舟夷」나 「不阡」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먼저 「故」자를 「연합」의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는 吳鎮烽과 王輝 등이 있다.<sup>15)</sup>

12) 吳鎮烽, <史密簋銘文考釋>, 《考古與文物》, 1989:3, 55쪽.

13) 彭裕商, 《西周青銅器綜合研究》, 巴蜀書社, 2003, 574-575쪽 참고.

14) 李學勤(1991:1), 앞의 논문, 55쪽.

15) 吳鎮烽(1989:3), 앞의 논문, 55쪽. 王輝, 《史密簋釋文考地》, 《人文雜誌》, 1991:4, 99쪽. 吳鎮烽은 “會合·合伙·群夥之意.(‘회합하다’·‘한패가 되다’·‘무리를 이루다’의 뜻)”라 하였고, 王輝는 “合訓聚合·聚集·聯合.(‘合’은 ‘聚合하다’·‘聚集하다’·‘聯合하다’의 의미)”라 하였다.

王輝는 《史密簋釋文考地》에서 「𡗗」字를 ‘合擊(협공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王命師俗史密王東征, 𡗗南夷」로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𡗗」자를 ‘聚合·聯合하다’로 해석하고, 아래 「會」자는 역시 ‘취합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며, “此句銘文總述南夷盧·虎與東夷杞·舟聚合起來, 騷擾周之邊鄙. 而於南夷言「𡗗」, 於東夷言「會」者, 乃變文以避單調也, 這種例子在古文獻中也是常見的.(이 구절은 주나라의 변방지역에서 南夷族인 盧族·虎族과 東夷族인 杞族·舟族이 규합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南夷에 대해서는 「𡗗」자를 쓰고, 東夷를 말하면서는 「會」자를 쓰는 것은 문장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古文獻에 자주 보인다)”라 했다.<sup>16)</sup>

그러나 張懋鎔은 《史密簋與西周鄉遂制度》에서 만약에 「𡗗南夷」에서 문장을 끊어 읽지 않으면, 한 문장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의어 「𡗗」과 「會」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하면서, 뒤의 「會」자를 명사 「鄘」族으로 이해하고, 「𡗗(會)南尸(夷)膚(莒)·虎·會(鄘)·杞夷·舟夷……」와 같이 「杞夷」·「舟夷」는 원래 東夷族인데 南夷族과 연합한다 하였다.<sup>17)</sup>

「會」를 동사의 용법으로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𡗗」자를 동사 ‘협력하다’로 해석한다면, 주어 생략문으로 이해하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연합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문의 문장형식이나 고대 문장 형식과 맞지 않다.<sup>18)</sup>

「𡗗」자를 ‘맞추다’·‘시기를 타다’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𡗗」자를 「值」·「逢」으로 해석하거나 「機會」의 의미로 해석하여 「南夷盧虎」가 「杞夷舟夷」와 협력함을 목적어로 보며, 실질적인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介詞나 副詞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李學勤은 본 구절을 “適逢南夷中的盧虎與杞州兩國勾結, 作亂不敬, 侵擾了周朝的東土. 這說明了銘文史事的背景.(南夷의 盧·虎 두 나라가 杞·州

16) 王輝(1991:4), 같은 문장, 100쪽.

17) 張懋鎔, <史密簋與西周鄉遂制度>, 《文物》, 1991:1, 26쪽.

18) 周寶宏, 《近出西周金文集釋》, 天津古籍出版社, 2005, 141쪽 참고.

두 나라와 협력하여 소란을 피우고 주나라를 섬기지 않은 때에 동쪽 지방을 침략하였다는 뜻이다. 이는 명문의 역사적 사실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다”라 하였다.<sup>19)</sup> 이렇게 해석한다면, 주어가 생략되어 亂을 일으킨 종족이 불명확하고, 南夷가 東夷族인 「杞」·「舟(州)」와 연합하여 亂을 일으켰으며 주나라가 토벌해야할 주 대상이 南夷인지 東夷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또한 금문에서 「故」는 실질적인 동사의 의미로 쓰이지, 副詞나 介詞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외에도 「故」자를 「토벌」의 의미로 해석한다. 張永山은 《史密簋銘與周史研究》에서 「故」자는 동사의 용법이고, 뒤의 「會」자는 「會」자와 같은 자로 국명이라고 설명하였다.<sup>20)</sup> 王雷生이 주장하는 「鎮撫」는 모두 ‘진압하다’는 뜻이 있으나,<sup>21)</sup> 무력으로 진압하기 보다는 ‘평화적으로 진정시키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張懋鎔 등이 주장하는 「合擊(협공하다)」와는 약간 다르다.<sup>22)</sup>

張懋鎔은 “「故」字爲會意字，卽用手(或持物)敲擊，使器皿與蓋嚴合，這是

- 
- 19) 李學勤은 “訓爲值·逢，後面的一個意思是聯合。(「故」은 ‘경우가 되다(值)’·‘상황에 따르다(逢)’의 의미이고, 뒤 「會」자는 ‘聯合하다’의 의미)”라 하였다. 李學勤(1991:2), 앞의 문장, 5쪽. 李仲操 <史密簋銘文補釋>(《西北大學學報》, 1990:1, 118쪽 참조) 역시 “機會·時機的意思.(‘기회를 타다’·‘시기를 맞추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 20) 張永山(1996.11, 앞의 책)은 “從支合聲，既有擊義，又表現合攏的動作，是一形聲兼會意的字。(「故」자는 편방 「支」와 「合」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격파하다’는 의미와 ‘협공하다’는 의미가 있는 「形聲兼會意」에 속하는 자이다)”라 하였다(187쪽). 張懋鎔은 “合而擊之，或曰圍而合之.(‘협공하거나, 혹은 포위해서 협공하다’의 의미)”라 하였다(1991:1, 앞의 논문, 26쪽).
- 21) 王雷生(<由史密簋銘看姜姓萊·異族的東遷>, 《考古與文物》, 1997:6)은 “「故南夷」就是「鎮撫南夷」.(「故南夷」는 ‘南夷를 진압하다’의 의미)”라 하였다(77쪽).
- 22) 張懋鎔(1989:7, 앞의 논문)은 “故字既然作合擊解，則只能在南夷後斷句。卽“王命師俗史密王東征，故南夷”爲一句。‘故南夷’無法斷屬下句。(「故」자를 「협공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南夷」뒤에서 문장을 끊어 읽어야 한다. 즉 “王命師俗史密王東征，故南夷”와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故南夷”의 구절을 아래 구절과 연결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 하였다.(64쪽)

它的本意. 本銘「故」字正用其本意, 卽合而擊之, 或曰圍而合之. 聯系上文文王命師俗史密二人挂率東征, 下文又談及師俗率齊師史密率玄族人分兵包抄, 合而擊之, 「故」字本義昭然若揭.(「故」자는 회의자이다. 손을 사용하거나 혹은 손에 쥐고서 두드려 기물의 뚜껑이 잘 봉합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이다. 본 명문에서 「故」자 역시 협력하여 격파하거나 혹은 포위하여 협공한다는 뜻이다. 앞 문장은 文王이 師俗과 史密에게 군대를 이끌고 東征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뒤에는 師俗이 齊師를 이끌고 출정하고 史密이 玄族人을 이끌고 좌우에서 협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故」자의 본래의 의미를 확연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라 하였다.<sup>23)</sup>

「合」자는 「支」과 「合」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說文解字》는 「故」자에 대하여 “故, 合會也. 从支合, 合亦聲.(「故」은 ‘봉합하다’의 의미. 편방 「支」와 「合」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며, 「合」은 또한 음을 나타낸다)”라 하였고, 음성은 「古沓切」이다. 徐灝의 《說文解字注箋》은 “合, 故古今字.(「故」자는 「合」자의 古字이다)”라 하고, 《爾雅·釋詁》는 “故, 合也.(「故」은 「合」의 의미이다)”라 했다. 《戰國策·秦策二》의 “楚王不聽, 遂舉兵伐秦. 秦與齊合, 韓氏從之. 楚兵大敗於杜陵.(楚王은 말을 듣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秦나라를 쳤다. 秦나는 齊나라와 연합하고, 韓나라가 이를 도와 楚나라 군사는 杜陵에서 크게 패했다)” 구절과 《史記·張儀列傳》의 “秦之所以不出兵函谷十五年以攻齊·趙者, 陰謀有合天下之心.(秦나라가 이른바 函谷關을 넘어 15년동안 齊나라와 趙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天下를 합병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절 중의 「合」은 「연합하다」 혹은 「합병하다」의 뜻이다. 「故」자 중 편방 「支」(支)은 「합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음을 말한다. 따라서 「故南尸(夷)」에서 문장을 끊어 읽고, 왕이 史俗과 史密에게 동쪽지역을 평정하고 南夷를 합병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虜虎會杞尸舟尸」는 虜族과 虎族이 東夷족인 杞夷와 舟夷와 협력하는 내용이다.

23) 張懋鎔(1989:7), 앞의 논문, 64쪽.

2. 「會(會)」

金文 중 《會始鬲》은 「會」로, 《馮亥鼎》은 「會」로 쓴다.<sup>24)</sup> 본 「會」자의 형태와 비슷하다. 금문에서 「會」자는 일반적으로 ‘회합하다’나 혹은 國名 「鄗」의 뜻으로 쓰인다. 陳初生은 「鄗國」을 「檜國」으로 쓰기도 하며, 지금의 河南省 滎陽市 密縣의 동북쪽에 해당되며 新鄭과 가깝게 위치해 있다고 했다.<sup>25)</sup>

《史密簋》의 「會」자 역시 일반적으로 ‘회합하다’와 國名의 의미로 해석한다.<sup>26)</sup> 李學勤·吳鎮烽은 「故南尸(夷)膚(盧)虎會杞尸(夷)舟尸(夷)」으로 문장을 끊어 읽고 ‘연합하다’의 의미로 해석하고, 李仲操은 동일하게 문장을 끊어 읽으나 ‘鄗國’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會」자를 ‘회합하다’로 해석한다. 張懋鎔은 “若將會字解釋爲鄗，認作國族名，句子變爲‘故(會)南尸(夷)膚(莒)·虎·會(鄗)·杞夷·舟夷……’，則把杞舟兩國族劃入南夷集團，這與杞舟均屬東夷集團這一常識相違背，故知其非.(만약에 「會」자를 國名 「鄗」로 해석한다면, 문장은 ‘故(會)南尸(夷)膚(莒)·虎·會(鄗)·杞夷·舟夷……’와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면 杞國과 舟國은 南夷族이 되는데, 이는 杞族과 舟族이 東夷族인 사

24) 容庚, 《金文篇》, 「0858 會」, 中華書局, 1985, 364쪽 참고.

25)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陝西人文出版社, 1987, 575쪽 참고.

26) ‘會合하다’·‘聚合하다’의 「動詞」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吳鎮烽<史密簋銘文考釋>(1989:3), 王輝<史密簋釋文考地>(1991:4), 李學勤<史密簋銘所記西周重要史實考>(1991:2), 張懋鎔等著<安康出土的史密簋及其意義>(1989:7)·<史密簋與西周鄉遂制度>(1991:1), 沈長雲<由史密簋銘文論及西周時期的華夷之辨>(《河北師院學報》, 1994:3, 23쪽), 方述鑫<史密簋銘文中齊師族徒遂人—兼論西周時代鄉遂制度與兵制關係>(《四川大學學報》, 1998:1), 王雷生<由史密簋銘看姜姓萊·彘族的東遷>(1997:6), 陳全方·尙志儒<史密簋銘文的幾個問題>(1993) 등이 있고, 「鄗國」이라는 「名詞」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李啓良<陝西安康市出土西周史密簋>(1989:3), 李仲操<史密簋銘文補釋>(1990:1), 張永山<史密簋銘與周史研究>(1996:11) 등이 있다.

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면서,<sup>27)</sup> 族名으로 해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周寶宏은 “盡管如此也無法解釋‘故(會)南夷廬·虎·鄗·杞夷·舟……’之鄗·杞·舟等本爲東夷爲何與廬·虎南夷並列而同放「南夷」屬名之下，而標明是東夷？因爲這確實涉及到南夷到底指哪個區域而說的，問題還須深入探討，因此，訓爲名詞鄗，訓爲動詞會合，二說可暫時並存。(그렇다고 할지라도 ‘故(會)南夷廬·虎·鄗·杞夷·舟……’ 중의 鄗·杞·舟 등은 본래 東夷族에 속하는데 왜 南夷族인 廬族, 虎族과 함께 「南夷」族 아래에 나열하였는가? 南夷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언급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名詞 「鄗」와 動詞 「會合하다」의 해석을 잠시 채택하기로 한다)”라 했다.<sup>28)</sup>

물론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南夷이고 東夷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문장을 “故(會)南夷, 廬·虎會杞夷·舟…….(南夷族을 협공하여 무찌르라. 廬族과 虎族은 杞夷와 舟族과 회합하여……)”로 이해한다면, 南夷族인 廬族과 虎族이 東夷族인 杞夷와 舟族과 단합하고 있기 때문에 周寶宏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說文解字》는 「會」자의 고문을 𠄎(尪)로 쓴다. 《金文篇》은 「尪」(《戊甬鼎》)에서 “迨當讀作會. 說文會字古文作尪. 從彳與從辵同義.(「迨」은 「會」의 의미이다. 《說文》은 「會」자의 고문을 「尪」로 쓴다. 편방 「彳」과 「辵」은 같은 뜻이다)”라 했다.<sup>29)</sup> 《保卣》는 「尪」로, 《牆盤》은 「尪」로, 《麥方尊》은 𠄎(尪)로 쓴다. 《靜簋》 중의 𠄎(尪)자 역시 「迨」의 이체자이다.

《麥方尊》의 “迨王饗(館)莛(豐)京酉祀.(왕을 모시고 豐京에서 酉(彤)祭를 행하다)” 구절과 《靜簋》의 “王曰(以)吳棊·呂剛(剛)尪(會)黻蓋白·邦周射于大池.(왕이 八月 初吉 庚寅 날에 「吳棊」·「呂剛(剛)」와 함께 「

27) 張懋鎔(1991:1), 앞의 논문, 26쪽.

28) 周寶宏(2005), 앞의 책, 144쪽.

29) 容庚, 앞의 책, 95쪽.

徽蓋白·「邦周」를 만나 辟雍의 큰 연못가에서 활쏘기를 하다” 구절 중의 「迨」와 「隄」자는 모두 「會」의 의미이다.<sup>30)</sup>

「會」자는 ‘단합하다’의 뜻으로, 「虜(盧)虎會杞尸(夷)舟尸(夷)」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盧族과 虎族은 杞夷와 舟夷와 단합하였다’의 뜻이다.

### 3. 「藿不阡」

「藿」·「不」자와 「阡」자를 《史密簋》는 각각 𠄎(𠄎)·「𠄎(𠄎)」·「𠄎(𠄎)」(𠄎)로 쓴다. 이 세 자를 각각의 宗族으로 보거나, 혹은 「藿」자를 「藿」이나 혹은 「觀」의 의미로 해석하거나, 「阡」자는 「折」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藿」자의 뜻은 ‘國族인 「觀國」으로 해석’하는 경우,<sup>31)</sup> ‘陣名인 「鶴陳」으로 해석하는 경우,<sup>32)</sup> 動詞 ‘觀察’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sup>33)</sup> ‘軍事術語 「觀兵」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sup>34)</sup> ‘語頭助詞 「唯」로 해석하는 경우,<sup>35)</sup> 動詞 ‘藿’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sup>36)</sup>가 있다.

王輝는 「藿」을 國名 「觀國」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古觀國在今河

30) 崔南圭 考釋, 《西周金文十八品고석과 임서》, 書藝文人畫, 2007, 39쪽, 83쪽 참고.

31) 李啓良<陝西安康市出土西周史密簋>(1989:3), 吳鎮烽<史密簋銘文考釋>(1989:3), 陳全方·尙志儒<史密簋銘文的幾個問題>(《考古與文物》, 1993:3), 王雷生<由史密簋銘看姜姓萊·晁族的東遷>(1997:6), 李仲操<史密簋銘文補釋>(1990:1) 등이 있다.

32) 張懋鎔(1989:7), 앞의 논문, 64쪽.

33) 張永山(1996.11), 앞의 논문, 187쪽.

34) 劉雨 《近出殷周金文綜述》(《古宮博物院院刊》, 2002:3), 7쪽. 林楠春 《史密簋銘文匯釋》(《青年文學家·語言研究》, 2011:11), 165쪽.

35) 林楠春, <史密簋銘文匯釋>, 《青年文學家·語言研究》, 2011:1, 165쪽 참조.

36) 李學勤<史密簋銘所記西周重要史實考>(1991:2), 7쪽. 王輝<史密簋釋文考地>(1991:4), 100쪽. 沈長云<由史密簋銘文論及西周時期的華夷之辨>(1994:3), 23쪽. 方述鑫<史密簋銘文中齊師族徒遂人—兼論西周時代鄉遂制度與兵制關係>(1998:1), 84쪽.

南範縣附近, 與齊之中間隔着魯國. 若觀國要與南夷一同伐齊, 必經過魯地界, 作爲西周在東方的主要諸侯國的魯, 不應隱坐釣台. 但從銘文看, 未見魯出動力與夷作戰, 故觀國參與伐齊的可能性不多. 且廬虎稱南夷, 杞舟稱夷, 獨觀不稱夷, 亦不合理.(觀國은 지금의 河南省 範縣 부근이며, 齊나라와의 사이에 魯나라가 가로막혀 있다. 만약에 觀國이 南夷와 함께 齊나라와 토벌을 하려 간다면 반드시 魯나라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西周 때 동방의 주요한 諸侯國 중의 하나였던 魯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銘文에는 魯나라가 출정하여 夷族과 전쟁을 한 내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觀國이 齊나라를 토벌하는데 참여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廬와 虎를 南夷라고 하고, 杞와 舟를 夷라고 부르면서 왜 觀國만을 夷라고 부르지는 않는가. 이 역시 불합리하다)”라 했다.<sup>37)</sup> 따라서 「藿」은 족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張懋鎔은 《左傳·定公二十一年》의 “鄭駟願爲鶴, 其御願爲鵝.(宋大夫 鄭駟은 鶴陳法을 원하고, 그의 전차를 운전하는 자는 鵝陳法을 원했다)” 구절에 대한 杜預의 “鶴鵝皆陣名.(鶴과 鵝는 모두 軍陳의 명칭이다)”라는 해석을 참고하여 “本銘藿字也用爲陣名.(본 명문 중의 「藿」자 역시 陣名의 뜻이다)”라 하였다.<sup>38)</sup> 그러나 금문에서 고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張永山은 「藿」자는 「觀察하다」의 의미이고, 「不」는 「邳國」이며, 「阡」자는 「阡」의 의미로 “指邳之北謀處高地而言.(邳國의 북쪽 어떤 고지대를 가리켜 말한다)”라 하였다.<sup>39)</sup>

劉雨는 “古之觀兵是進行軍事威脅的一種戰爭手段, 企圖以不戰而屈敵人之兵. 「不陟」即《班簋》否畀屯陟之省, 意指‘大踏步之前進’.(옛날에 「觀兵」은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일종의 전쟁 수단이다. 전투를 하지 않고서 적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兵이다. 「不陟」은 《班簋》 ‘否畀屯陟’의 의미와 같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는 뜻이다)”라 하고,<sup>40)</sup> 林楠春은 “觀兵

37) 王輝(1991:4), 같은 논문, 99쪽.

38) 張懋鎔(1989:7), 앞의 논문, 64쪽.

39) 張永山(1996.11), 앞의 논문, 187쪽.

應爲古代的一種軍事活動，意在炫耀本國的軍事實力。(「觀兵」은 고대 군사와 관련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보여주어 과시하려는 것을 말한다)라 했다.<sup>41)</sup> 「否畀屯陟」 중의 「畀」는 ‘賜予(하사하다)’, 「屯」자는 ‘홀륭하다’의 「純」, 「陟」는 ‘승진(升進)시키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높고 큰 지위를 부여하다’로 해석하기도 한다.<sup>42)</sup> 따라서 「觀」을 전쟁의 한 전문용어로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다.

李仲操 《史密簋銘文補釋》은 語頭助詞 「佳」로 예정하고 「唯」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不阡」은 「不慙(순중치 않다)」로 풀이하였다. 李學勤은 「藿」자를 「謹」로, 「阡」자를 「慙」자로 해석하여 “謹意思是喧亂, 慙的意思是敬.(「謹」은 ‘소란을 피우다’, 「慙」은 ‘존경하다’의 뜻이다)”라 했다. 王輝 역시 같은 의미인 「謹」로 해석하였다.<sup>43)</sup>

《說文解字》는 “謹, 謹也.(「謹」은 ‘떠들다’의 의미)”라 하였다. 금문 중 《御尊》은 「藿」으로 쓰고, 《菴女觶》는 「藿」으로 쓴다.<sup>44)</sup> 《荀子·儒效》 “此君義信乎人矣, 通於四海, 則天下應之如謹.(이러한 임금의 뜻을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온 세상에 통하게 되니 곧 온 천하가 떠들썩하게 그에게 호응한다)”에 대하여 楊倬은 “謹, 喧也. 言聲齊應之也.(「謹」은 ‘떠들다’의 의미. 함께 소리에 대응한다는 뜻)”이라 했다. 「藿」자를 「謹」의 의미로 해석하고, 뒤의 「不阡」을 ‘不慙(순중하지 않다)’로 이해한다면 문장 전체적 내용이 확연히 드러난다.

「不阡」은 ‘國族’으로 해석하고, 「不」과 「阡」을 각각 國名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sup>45)</sup> 「不」은 ‘國名’으로 「阡」은 ‘陟」나 혹은 「阨」의 의미’

40) 劉雨, 《近出殷周金文綜述》, 《古宮博物院院刊》, 2002:3, 7쪽. 林楠春, 《史密簋銘文匯釋》, 《青年文學家·語言研究》, 2011:11, 165쪽.

41) 林楠春(2011:1), 같은 논문, 165쪽 참조.

42) 陳初生 등 編著, 《古文字讀本》, 語文出版社, 1989, 95쪽. 「大大地賜予美善使之得以擡升高位。」

43) 李學勤(1991:2), 앞의 논문, 5쪽. 王輝(1991:4), 앞의 논문, 100쪽. 李仲操(1990:1), 118쪽.

44) 容庚, 앞의 책, 「0612 藿」 259쪽 참고.

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sup>46)</sup> 또한 「不屈」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sup>47)</sup> 「阡」자를 「墮」으로 해석하는 경우,<sup>48)</sup> 「不敬」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sup>49)</sup>가 있다.

張懋鎔은 「隗」자를 陣名으로 해석하고, 「阡」자를 「墮落」의 의미로 해석하여 “不墮是用來形容鶴陣排列有序, 行動自如. 像鶴鳥飛翔上下, 旋轉不落.(「떨어지지 않는다(不墮)」라는 말은 鶴陣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마치 鶴鳥가 하늘로 비상하여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라 했다.<sup>50)</sup> 짧은 銘文의 내용 속에 이와 같이 적군의 兵陣法까지 설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王輝는 「隗」자는 「觀族」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廬와 虎를 南夷라고 하고 杞와 舟를 夷라고 부르면서 왜 觀國만을 夷라고 부르지 않는가」라 하고, 「不」와 「阡」도 族名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51)</sup>

「隗(隗)」자는 「阜」와 「斤」으로 이루어진 자이며, 「斤」은 「折」의 생략형이다. 따라서 이 글자는 편방 「阜」와 「折」省聲으로 이루어진 자이다. 금문은 「折」자를 「𠄎」·「𠄏」·「𠄐」·「𠄑」 등으로 쓰며,<sup>52)</sup> 《說文解字》는 “斷也.(절단하다)”의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廣雅 釋詁》는 “折, 下也.(「折」은 ‘굴복하다’의 의미)”라 하고, 《戰國策·制策》의 “晚求之, 韓且折而入於魏, 不如早求之.(늦게 구원하게 되면, 韓나라가 오히려 굴복하고 魏나라에 항복할 것이니, 빨리 구원하는 것만 못하다)”에 대하여 高誘는 “折, 分也. 猶從也.(「折」은 ‘분산되다’로 ‘복종하다’의 의미와 같다)”라 했다. 「阡」

45) 李啓良(1989:3), 앞의 논문, 7쪽.

46) 陳全方·尙志儒(1993:3), 같은 논문 78쪽. 張永山(1996.11), 앞의 책, 187쪽.

47) 吳鎮烽(1989:3), 앞의 논문, 55쪽.

48) 張懋鎔(1989:7), 앞의 논문, 64쪽.

49) 李學勤(1991:2), 앞의 논문, 7쪽. 王輝(1991:4), 앞의 논문, 100쪽. 李仲操(1990:1), 118쪽.

50) 張懋鎔(1989:7), 앞의 논문, 64쪽.

51) 王輝(1991:4), 앞의 논문, 100쪽.

52) 容庚, 앞의 책, 「0085 𠄎」, 38쪽 참고.

자는 「折」의 의미인 ‘굴복하다’·‘복종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李學勤은 「慙(공경할 철, zhé)」으로 해석하였다.<sup>53)</sup> 음과 의미가 「折」과 유사하나, 「折」이 이미 ‘복종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慙」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겠다.

따라서 「藹不折」은 「藹不折」으로, ‘소란을 피우고 (주나라에) 복종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 4. 「廣伐東或齊白族土述人乃執曷寡亞」 구절에 대한 이해

「廣伐東或(國)」의 구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일치한다. 「廣」은 ‘널리’·‘두루’라는 의미의 부사어로 쓰이고, 「伐」은 ‘공격하다’·‘정벌하다’의 뜻이다. 《商頌·殷武》“奮伐荊楚.(군사를 일으켜 荊楚를 치다)”에 대하여 鄭玄은 “有鍾鼓曰伐(군사가 종과 북을 두드리면서 치는 것을 伐이라 한다)”라 하고, 《孟子·告子下》“是故天子討而不伐.(따라서 천자는 토벌은 하나 침략은 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焦循《孟子正義》는 “討者, 上討下也. 伐者, 敵國相征伐也.(「討」라는 것은 上國이 下國을 정벌하는 것이고, 「伐」은 적국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금문 중 《廣父己簋》은 「廣」자를 「𡗗」로, 《班簋》은 「廣」로, 《多友鼎》은 「廣」로 쓰며,<sup>54)</sup> 人名 이외에 주로 「廣大하다」의 의미로 쓰인다.<sup>55)</sup>

吳鎮烽은 「廣伐東或齊白·族土·述人」으로 문장을 읽어, 東國은 즉 「齊白」·「族土」·「述人」와 同格이며 “齊白族土遂國皆處周王朝的東部, 是這次南夷侵伐的對象.(齊白·族土와 遂(述)國은 모두 周나라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南夷가 침략한 대상 중의 하나이다)”라 하였다.<sup>56)</sup> 이러한 문제는 「

53) 李學勤(1991:2), 앞의 논문, 7쪽.

54) 容庚, 앞의 책, 「1547 廣」, 658쪽 참고.

55) 陳初生, 앞의 책, 876쪽 참고.

56) 吳鎮烽(1989:3), 앞의 논문, 55쪽.

廣伐東國」과 「齊師族徒遂人」의 구절을 連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廣伐東國齊師族徒遂人」을 連讀하는 경우

李啓良(1989), 吳鎮烽(1989), 王輝(1991), 陳全方·尙志儒(1993), 李仲操(1990), 王雷生(1997) 등은 「廣伐東國」와 「齊師族徒遂人」 구절을 연결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齊師」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① 「齊師」를 敵國으로 이해

李啓良은 周나라 천자가 師俗과 史密에게 南夷의 廬·虎·會族과 杞夷舟夷의 藺·不·阡族과 연합하여 齊師를 토벌하려고 한다고 하며, “記載了周天子分命師俗史密二人率軍聯合南夷的廬虎會, 杞夷舟夷中的藺不阡等廣伐東國一事. 這次征戰敵方是齊國.(周나라 天子는 師俗과 史密 두 사람에게 南夷의 廬族·虎族과 會族이나 杞夷·舟夷 중의 藺族·不族·阡族 등과 연합하여 동쪽 지방을 정벌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번 출정의 적국은 齊나라이다)”라 했다.<sup>57)</sup>

② 「齊師」를 師俗이 통솔할 군대로 이해

王雷生은 「鄙寡亞」를 ‘동쪽 변방국인 寡國의 제후 亞’로 이해하고, “王命令師俗史密說: 東征, 按撫南夷. 虜虎已會同杞夷舟夷藺不阡諸師廣伐東國, (爾等率)齊師族土述人的(主要任務)乃是逮捕東鄙寡國的侯亞.(왕이 師俗과 史密에게 명령하였다. 동쪽 지방을 정벌하고, 南夷를 순방하여라. 虜虎族은 이미 杞夷舟夷藺不阡 등의 군대와 협력하여 동쪽 지방을 두루 정벌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齊師族土述人的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동쪽 변방지역 寡國의 제후 大亞를 체포하도록 하여라)”로 해석하여, 齊師를 師俗과 史密이 이끌고 출전해야할 군대이며, 토벌할 대상은 「鄙寡亞」라 했다.<sup>58)</sup>

57) 李啓良(1989:3), 앞의 논문, 7쪽.

58) 王雷生(1997:6), 앞의 논문, 77쪽.

③ 「齊師」를 南夷가 침범한 나라

吳鎮烽은 南夷가 두루 정벌한 대상을 「齊師」·「族徒」·「遂人」으로 보았다. 또한 두 번 출현하는 「齊師」 중 첫 번째는 地名이고 두 번째는 「齊國」의 군대라 하였다.<sup>59)</sup>

陳全方은 杞舟翟丕가 변경을 침범하여 東國인 齊師를 정벌한 것으로 이해하고, 「齊師」와 그 다음 구절 「族徒·遂人……」을 분리하여 해석하고 있다.<sup>60)</sup>

王輝는 南夷와 東夷가 연합하여 東國인 「齊師」·「族徒」·「遂人」를 정벌하고, 「寬」과 「亞」를 각기 국가와 제후명으로 이해하여, 南東夷가 周나라 주변국가 제후인 「寬亞」까지 잡아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61)</sup>

李仲操는 「虜」·「虎」와 「會」族 三夷가 杞·舟 東夷族 중의 하나인 翟國이 不旰(不敬)하고 東國인 齊師를 정벌하였다고 하며, “南夷廬虎會是南夷中的三個小國……, 則簋銘「舟夷翟」就應該是舟道之夷中的觀國了, 也可相合. 杞舟二夷, 簋銘把它同南夷並列, 說明它們不屬南夷. 杞舟二地都在東國地界, 則二夷實屬東夷.(南夷 廬·虎·會는 南夷의 작은 삼개국이다……, 명문 중의 「舟夷翟」는 舟道 중의 夷族 觀國으로 이해하여야 문맥이 맞다. 杞와 舟 두 이족을 南夷와 함께 나열한 것은 이 두 夷族이 南夷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杞와 舟는 동쪽지역에 있고, 이 두 夷族은 모두 東夷에 속한다)”라 했다.<sup>62)</sup>

2) 「廣伐東國」과 「齊師族徒遂人」 구절을 分讀하는 경우

張懋鎔(1991), 李學勤(1991), 張永山(1996), 沈長云(1994) 등이 「廣伐東國」에서 한 문장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張懋鎔은 金文에서 「廣伐」로 이루어진 구절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59) 吳鎮烽(1989:3), 앞의 논문, 55쪽.  
 60) 陳全方(1993:3), 앞의 논문, 78쪽.  
 61) 王輝(1991:4), 앞의 논문, 99 쪽.  
 62) 李仲操(1990:1), 앞의 논문, 118쪽.

출현함을 예로 들며, “第二句仍應斷在「廣伐東國」之後. 西周戰爭銘文恒見「廣伐××」句, 都作如是斷句, 概無例外……史密簋既言廣伐東國, 則「廣伐」的範圍一定不小, 若將「廣伐東國」句與「齊師」連讀, 則直言「廣伐齊師」, 如多友鼎「廣伐京師」便可, 何必加上東國二字? 如果把「齊師」釋為地名, 後文「師俗率齊師·遂人」句無法解釋. 齊師·族徒·遂人, 三者顯然為並列詞語, 詞性相當, 若將齊師解作地名, 族徒·遂人又說為國族名, 豈不自相矛盾.(두 번째 구절은 「廣伐東國」에서 끊어 읽어야 한다. 戰爭에 관한 西周 銘文은 「廣伐××」와 같은 문장 형식을 자주 쓰는데, 거의 예외없이 이 구절 뒤에서 끊어 읽는다. ……《史密簋》가 「廣伐東國」라고 한 것으로 보아 「廣伐」한 범위는 아마 상당히 넓었을 것이다. 만일 「廣伐東國」과 「齊師」를 연결되는 구절로 본다면, 예를 들어, 《多友鼎》의 「廣伐京師」 구절과 같이 「廣伐齊師」으로 쓰면 되는데, 「東國」이란 말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齊師」를 地名으로 이해하면 「師俗率齊師·遂人」의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齊師」·「族徒」와 「遂人」은 병렬구조로 품사가 같으며, 만약에 「齊師」를 「地名」으로 해석하면 「族徒」와 「遂人」은 國族名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된다.”라 했다.<sup>63)</sup>

금문 중 「廣」과 「伐」이 결합된 구조로 《多友鼎》은 “用嚴(獵)允(狃)放(方)輿(興), 廣伐京白(師), 告追于王.(獵狃이 반란을 일으켜 京師 지방을 크게 혼란하게 하자 왕에게 토벌하는 일을 보고 하였다)”로 쓰고,<sup>64)</sup> 「廣」과 「批」가 결합하여 《牆盤》은 “弘(宏)魯邵(昭)王, 廣能楚荆(荆), 佳(唯)賓南行.(위대하고 훌륭한 昭王은 널리 楚荆을 정벌하고, 성대한 군대를 이끌고 南行하였다)”라 했다. 「廣能」 중의 「能」자를 「批」자로 해석하기도 하고,<sup>65)</sup> 음성부분을 「能」로 보고, 「答」의 통가자인 ‘정벌하다’·‘다스리다’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sup>66)</sup>

63) 張懋鎔(1991:1), 앞의 논문, 26쪽.

64) 최남규, 《중국고대금문의 이해》, 신아사, 2009, 342쪽 참고.

65) 陳初生, 같은 책, 877쪽 참고.

「伐」자는 단독으로 「정벌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 외에, 「戮(撲)」 등과 함께 쓰여 “王臺(敦)伐[其]至, 戮(撲)伐畢都.(왕은 그 침범을 확실히 토벌하고자 長國의 수도를 공격하였다)”(《馱鐘》)로 쓰기도 한다.<sup>67)</sup>

따라서 張懋鎔의 주장에 따라 「廣伐東土」에서 문장을 끊어 읽기로 하면, 南夷가 東夷와 연합하여 동쪽 지방을 침범하자 周나라 친자가 師俗과 史密에게 이를 물리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師俗率齊白(師)·遂人左[周]伐長必, 史密父率族人·釐白(伯)·夔·眉周伐長必」구절 중 「師俗率齊白(師)·遂人」의 구절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또한 師俗은 齊師와 遂人을 인솔하여 좌측으로 長必을 공격하고, 史密父는 우측에서 族人·釐伯·夔와 眉族을 통솔하여 周나라 주력부대를 도와 長必을 공격하여 포로 百人을 사로잡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李學勤(1991), 張永山(1996) 등은 「齊師族徒遂人」을 周나라가 보호해야 할 國名으로 이해하였다. 李學勤은 “適逢南夷中的盧虎與杞州兩國勾結, 作亂不敬, 侵擾了周朝的東土. 這說明了銘文史事的背景……. 是說因有夷人侵擾東土, 齊國的各種部隊防守邊邑, 以避禍害.(南夷 중의 하나인 盧族과 虎族이 杞와 州 두 나라와 협력하여 소란을 피우고 복종하지 않고 周나라의 동쪽 지방을 침범하였다. 이는 명문에 새겨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는 夷人이 동쪽 지방을 침략하자 齊國의 여러 부대가 변방지역을 방어하여 피해를 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 하고,<sup>68)</sup> 張永山은 “此句追述齊師族土遂人聯合扼守某國邊鄙以待敵軍的狀況. 銘文至此是交代師俗史密奉命東征前東國遭南夷的進犯, 以及採取的戰備措施, 以下敘述東征的狀況.(이 구절은 齊師族土와 遂人이 연합하여 어떤 변방 지역에서 적군을 대비하는 방어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66) 최남규, 위의 책, 281쪽 참고.

67) 최남규, 같은 책, 336쪽 참고.

68) 李學勤(1991:2), 앞의 논문, 7쪽.

여기까지가 師俗과 史密이 천자의 명을 받아 東征을 하기 전에 東國이 南夷의 침범을 받았다는 것과 전쟁을 대비하여 취한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이 다음부터는 東征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언급하였다”라 하였다.<sup>69)</sup>

따라서 본 논문은 「廣伐東或(國)」과 「齊白(師)·族土(徒)·述(遂)人」를 분리하여 읽고, 「廣伐東或(國), 齊白(師)·族土(徒)·述(遂)人, 乃執鬲(鄙)寡亞(惡)」은 盧族과 虎族이 杞夷와 舟夷와 단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周나라를 받들지 않고 함부로 동쪽 지역을 침범하자, 齊師·族徒과 遂人이 변방 寬 지역의 武官을 잡아들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로 한다.

### 3) 「乃執鬲寡亞」

「乃執鬲(鄙)寡(寬)亞(惡)」 구절에 대한 의견 또한 매우 분분하다.

「乃」자는 금문에서 일반적으로 「代詞」·「副詞」와 「連詞」의 용법으로 쓰인다.<sup>70)</sup>

吳鎮烽과 張永山은 「乃」자를 副詞의 용법으로 보았다. 吳鎮烽은 “乃在該句中表示程度的副詞, 可譯爲竟然·居然.(「乃」자는 본 구절에서 程度副詞의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竟然(마침내)’·‘居然(결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 하고,<sup>71)</sup> 張永山은 “這句話里的「乃」字在謂語「執」之前, 起到前後兩種事物在情理上的順承作用.(「乃」자는 술어「執」자 앞에 쓰여, 「執」자 앞 뒤 사건이 이치상 서로 상호 관련이 있어 발생함을 표시한다)”라 했다.<sup>72)</sup>

張懋銘은 「乃」자를 「連詞」로 해석하고, “在此句之前, 乃是敘述本次戰役

69) 張永山(1996:11), 앞의 논문, 187쪽.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齊師族徒遂人」이 「乃執鄙寡惡」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주나라가 敵國으로 간주하고 토벌해야할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3) 「乃執鄙寡惡」’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70) 陳初生, 앞의 책, 498쪽.

71) 吳鎮烽(1989:3), 앞의 논문, 55쪽.

72) 張永山(1996.11), 앞의 책, 187쪽.

的起因, 也即周王命師俗·史密東征的由來. 在此句之後, 則是敘述戰役的過程. 顯然本句是在戰役開始之前, 即周王派將領來統馭之前, ‘齊白(師)·族土(徒)·遂人’對戰爭局勢作出的反應. 特別是本句中的「乃」字, 表明前句爲「因」, 此句爲「果」. 與多友鼎‘用玁狁方興, 廣伐京白, 告追于王’. 「用」字表示「因」或「由」. 因爲玁狁大興, 廣伐京白, 所以京白, ‘告追于王’. 多友鼎由「用」無「乃」, 本簋有「乃」無「用」, 在表明因果關係上, 二者是一致的. 所以本句是描寫齊白(師)·族徒·遂人在大戰前夕的行動.(이 문장 앞까지의 내용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周나라 왕이 師俗과 史密에게 東征을 하게끔 한 이유이다. 이 문장 다음은 전쟁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즉 周나라 왕이 장군을 파견하여 통솔하기 前, 齊師·族徒와 遂인이 進軍에 대한 반응 행위이다. 「乃」자 앞 구절 「因(원인)」에 해당되며, 본 구절은 「果(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지이다. 《多友鼎》‘用玁狁方興, 廣伐京白, 告追于王(玁狁이 반란을 일으켜 京師 지방을 크게 혼란케 하자 왕에게 토벌할 것을 보고 하였다)’ 중의 「用」자는 「因(원인)」이나 「由(이유)」를 표시하여, 玁狁이 크게 반란을 일으켜 京白을 쳐들어오자, 그 결과 京白가 ‘왕에게 보고 하였다(告追于王)’이다. 《多友鼎》은 「用」자를 사용하였으나 「乃」자는 보이지 않고, 《史密簋》는 「乃」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用」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구절은 齊師·族徒와 遂인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행한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라 하였고,<sup>73)</sup> 「執鄙寬亞」는 南夷가 쳐들어오자 周나라의 주력 부대가 들어오기 전, 일종의 방위태세를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齊師는 周나라를 도와서 함께 南夷를 물리칠 齊나라 지역의 군대로 보고 있다.

「乃」자가 「副詞」이든 혹은 「連詞」의 용법이든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連詞라면 전후 문장을 연결해 주는 連詞 「且(所以)」와 같은 역할을 하여 결과를 표시하고, 副詞라면 ‘결국’·‘마침내’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결과를

73) 張懋鎔(1991:1), 앞의 논문, 26쪽.

표시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품사에 관계없이 모두 ‘따라서’·‘결국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執(執)」자는 일반적으로 동사인 ‘체포하다’<sup>74)</sup> 혹은 ‘방어하다’<sup>75)</sup>의 의미로 해석한다.

張懋鎔은 「執」자가 ‘체포하다’와 관련이 있으나, “「執」有守義. ……《廣雅·釋言》「執, 脅也。」是知執有拘捕·決斷·控制·脅迫等意思. 我們注意到這些字義有一個共同點, 即都含有從外向內收攏·緊縮的意向. 所謂“執鄙”就是加緊加強邊境防守的意思.(「執」에는 ‘방어하다’의 뜻이 있다. ……《廣雅·釋言》는 ‘「執」을 ‘위협하다’의 뜻’이라 했다. 따라서 「執」은 ‘체포하다’·‘결단을 내리다’·‘통제하다’·‘협박하다’ 등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는 공통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내부를 결속하다’나 ‘내속을 다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執鄙’는 내속을 다지거나 내부의 힘을 강화시켜 변방을 방어한다는 뜻이다)”라 했다.<sup>76)</sup>

금문은 「執」자를 「執(執)」(《蓼生盤》)·「執(執)」(《貝鼎》)·「執(執)」(《虢季子白盤》)·「執(執)」(《師寰簋》)·「執(執)」(《不娶簋一》)·「執(執)」(《不娶簋》)·「執(執)」(《多友鼎》) 등 다양한 형태로 쓴다.<sup>77)</sup> 갑골문은 「執(執)」·「執(執)」·「執(執)」·「執(執)」 등으로 쓴다. 갑골문 금문 모두 두 손을 앞으로 묶어 刑具를 채워 체포하는 형상이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명문에서 「執(執)」자는 「訊(訊)」자와 함께 쓰여 「執(執)하여 심문하다」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多友鼎》은 “多友右(有)折首執(執)訊(訊).(多友는 또한 적을 참하거나 포로로 잡아 심

74) 吳鎮烽(1989:3), 王輝(1991:4), 李仲操(1990:1), 方述鑫(1998:1)은 등은 「執」자를 ‘사로잡다’(拘捕)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75) 李學勤(1991:2), 張永山(1996.11), 張懋鎔(1989:7) 등은 ‘방어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76) 張懋鎔(1991:1), 같은 논문, 26쪽.

77) 容庚, 앞의 책, 「1686 執」 704쪽 참고.

문하다)”라고 하고, 《號季子白盤》은 “折首五百, 執𩇑(訊)五十.(5백명을 참하고, 50명을 생포하고 심문하였다)”라고 했으며, 《兮甲盤》은 “兮甲從王折首執𩇑(訊), 休.(兮甲은 왕을 수행하여 적을 참하고 포로를 생포하여 심문하는 등 일을 잘 수행하여 근심을 없었다)”라 하였으며, 《詩經·小雅·出車》은 “執訊獲醜, 薄言還歸(많은 적을 포로로 잡아 심문하거나 목숨을 빼앗아 돌아오네)”라 했다. 「𩇑」자는 「執」자와 같은 자로 ‘체포하다’이며, 「𩇑」은 「訊」자의 初文으로 ‘포로로 잡아 심문하다’의 뜻이다.<sup>78)</sup>

《史密簋》의 「執」자는 역시 ‘사로잡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史密簋》는 「罍」·「寡(寬)」·「亞」자를 각각 「罍(罍)」·「寡(寡)」·「亞(亞)」로 쓴다. 이들 문자 중 「寡」자를 일반적으로 「寬」으로 隸定하나, 吳鎮烽만이 「寡」자로 예정하고 국명으로 보고 있다.<sup>79)</sup>

「罍寡(寬)亞」에 대한 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문장은 문장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吳鎮烽(1989)·李仲操(1990)·王輝(1991) 등은 「罍(鄙)」는 변방지역, 「寡(寬)」는 음명 혹은 국명, 「亞」는 武官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본 문장을 뒷문장과 연결하여 “廣伐東國齊師·族徒·述(遂)人, 乃執罍寡(寬)亞.(남이와 동이가 연합하여 동국인 齊師·族徒와 述(遂)人을 점령하고, 동시에 齊國 변방 지역인 寬邑의 무관을 사로잡아갔다)”라 하며, 따라서 「罍寡(寬)亞」를 점령한 주세력을 南夷로 보고 있다. 方述鑫은 「寡(寬)亞」자를 「大惡」으로 해석하고, 「廣伐東國」와 「齊師·族徒·述(遂)人, 乃執罍寡(寬)亞」의 문장을 분리하여 이해하며, “「齊師·族徒·述(遂)人乃執罍寡亞」, 卽齊師·族徒·遂人乃打擊俘獲「廣伐東國」的南夷中的廬·虎與東夷中的杞·舟(州)這些對周朝而言實爲邊野地區的罪大惡極者.(「齊師·族徒·述(遂)人乃執罍寡亞」의 뜻은, 즉 齊師·族徒와 遂人은 「廣伐東國」하는 주나라 변방지역에 위치한 南夷의 廬族·虎族과 東夷의 杞族·舟(州)族 등이 행하는 극

78) 최남규, 앞의 책, 341, 374쪽 참고.

79) 吳鎮烽(1989:3), 앞의 논문, 55쪽.

악한 행위와 행위자를 전멸하고 생포하였다)”라 하여,<sup>80)</sup> 「乃執鬲寡(寬)亞」를 齊師가 南夷의 악랄한 행위를 저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張懋鎔 등은 《安康出土的史密簋及其意義》에서 「鬲」자를 「圖」로 해석하고, “乃執圖·寬·亞, 圖·寡·亞三字在動詞執之後, 而金文中凡執字之後往往是敵擄, 因此圖·寡·亞應是捕捉的三個的敵西名字.(「乃執圖·寬·亞」 중의 「圖·寬·亞」 세 자는 動詞 「執」자 뒤에 놓여있다. 金文에서 「執」자 뒤에 놓이는 자는 일반적으로 적의 포로이다. 따라서 圖·寬·亞은 포로로 잡은 적장의 이름이다)”라 했다.<sup>81)</sup> 그러나 張懋鎔은 《史密簋與西周鄉遂制度》에서는 “防守邊方, 緩和亞地.(변방을 방어하고, 亞지역을 완화시키다)”로 이해하였다.<sup>82)</sup>

둘째, 李學勤과 張懋鎔 등은 「執鬲寡(寬)亞」을 두 개의 문장구조인 「執鬲」와 「寡(寬)亞」로 이해하였다. 李學勤은 「鬲」를 변방의 읍, 「寡(寬)」을 「멀리하다(遠離)」로, 「亞(惡)」은 「災禍」로 해석하고, 「齊師·族徒·述(遂)人乃執鬲寡(寬)亞」를 한 단락으로 이해하며 「是說因有夷人侵擾東土, 齊國의 各種部隊防守邊邑, 而避禍害.(夷人이 東土를 침범하여 소란을 피우자 齊國의 部隊들은 변방지역에 방어벽을 구축하고 전쟁의 재난을 피하였다)」라 했다.<sup>83)</sup>

셋째, 張永山은 「寡(寬)亞」를 변방의 두 지명으로 보고, “防守邊鄙寬亞兩地.(변방 지역의 「寬」과 「亞」의 두 지역을 방어하다)”로 이해하였다.<sup>84)</sup>

「乃執鬲寡(寬)亞」중 「乃」자를 連詞로, 「執」자를 동사로 이해한다면, 본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動詞(執)+目的語(鬲), 動詞(寡(寬))+目的語(亞)」의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李學勤은 「防守邊邑, 避開禍害.(변방을 방어하고, 재난을 피하다)」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亞」자

80) 方述鑫(1998:1), 앞의 논문, 84쪽.

81) 張懋鎔(1989:7), 앞의 논문, 64쪽.

82) 張懋鎔(1991:1), 앞의 논문, 26쪽.

83) 李學勤(1991:2), 앞의 논문, 5쪽.

84) 張永山(1996.11), 앞의 책, 187쪽.

가 「惡」의 의미로 쓰인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張懋鎔은 「寡(寬)」자를 「綽(너그러운 작, chāo)」·「緩(느릴 완, huǎn)」으로 해석하여 “防守邊方, 緩和亞地.(변방을 방어하고, 亞 지역을 완하시키다)”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sup>85)</sup> 그러나 또한 금문에서 「寡(寬)」자가 ‘緩和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중에 하나는, 「動詞述語(執)+冠形語(鄙)+目的語1(寡(寬))+目的語2(亞)」와 「動詞述語(執)+冠形語(鄙)+관형어(寡(寬))+目的語(亞)」로 보는 것이다. 前者는 「執」자의 목적어를 변방 지역의 「寡(寬)地」와 「亞地」로 이해하고, 後者는 변방지역 觀國의 「亞」라고 하는 人名 혹은 官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본 명문에서 「執」자가 「생포하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林楠春은 《史密簋銘文匯釋》에서 “寬是鄙名, 亞是武官名.(「寬」은 변방의 地名이고, 「亞」는 武官의 이름이다)”라 했다.<sup>86)</sup>

王輝는 《史密簋釋文考地》에서 “「鄙寬亞」是周邊鄙寬地的武官, 也是當地的諸侯. 看來, 寬只能是氏族或國族名. 寬之不見于記載, 不過我疑當讀作爰或袁.(「鄙寬亞」는 주나라 변방 지역인 寬 지방의 武官을 가리킨다. 즉 「亞」는 그 지역의 諸侯이며, 「寬」은 氏族이나 國族의 이름이다. 「寬」이라는 지역 명칭은 고문헌에 보이지 않지만 「爰」 혹은 「袁」 지방이 아닌가 한다)”라 하며,<sup>87)</sup> 「寡(寬)」자는 「爰」 혹은 「袁」자와 통하여 「袁樓」와 「爰樓」중의 「袁」·「爰」의 지명이라 하였다.

《金文篇》과 《漢語古文字字形表》는 금문 중에는 「寬」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88)</sup> 《史密簋》의 「寡」자는 「寡」자가 아닌가한다. 금문에서 「寡」자는 「𠄎」(《毛公鼎》)·「𠄎」(《父辛卣》)·「𠄎」(《寡子卣》)·「

85) 張懋鎔(1991:1), 앞의 논문, 26쪽.

86) 林楠春, <史密簋銘文匯釋>, 《青年文學家·語言研究》 2011:11, 166쪽 참고.

87) 王輝(1991:4), 앞의 문장, 99쪽.

88) 徐中舒 主編, 《漢語古文字字形表》(1991)는 《三體石經》 중의 「𠄎(寬)」자만을 수록하고 있다. 291쪽 참고.

𠄎(《中山王𠄎鼎》)으로 쓴다.<sup>89)</sup> 「𠄎」자는 「𠄎」과 「頁」로 이루어진 자이며, 「𠄎」자 중의 윗부분은 「𠄎(頁)」자의 윗부분이 변형된 형태가 아닌 가한다. 「𠄎」의 형태는 「𠄎」와 비슷하다. 吳鎮烽이 「𠄎」자를 「寡」자로 해석하고 “此銘的鄙寡亞就是守邊鄙寡邑的武官。(본 명문의 「鄙寡亞」는 변방 寡邑을 지키는 武官이다)”라 하였다. 古音 「寡」와 「寬」자는 서로 통하고, 「寬」자는 또한 「爰」·「袁」자와 통가자로 쓰일 수 있다. 「寬」은 「苦官切」이고 古音은 「溪」母「元」部이며, 「寡」는 「古瓦切」이고 古音은 「見」母「魚」部로, 「爰」과 「袁」자는 「雨元切」이고 古音이 「云」母「元」部이다. 따라서 「𠄎」자를 「寡」로 예정하고 「寬」자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動詞述語(執)+冠形語(鄙)+관형어(寡(寬))+目的語(亞)」의 구조로 이해하여 “齊師·族徒과 遂人은 변방 寬 지역의 武官을 잡아들었다”로 해석하기로 한다.

### III. 結 論

《史密簋》은 모두 93자이며, 이중 合文 1자, 重文2자가 있다. 왕이 大臣 史俗과 史密로 하여금 長必에 출동하여 夷族을 물리치도록 한 내용으로 서주의 역사와 管制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史密簋》의 斷代는 夷王때에 周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아, 《史密簋》에서 언급한 齊나라가 周나라를 도울 수 있는 시기는 懿王에서 孝王 때이고, 역사적 사건을 참고해 볼 때, 共懿王 양대에 걸쳐 활약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故南尸(夷), 虜(盧)虎會杞/尸(夷)·舟尸(夷), 藿(謹)不旰(慙), 廣伐東或(國)/齊白(師)·族土(徒)·述(遂)人, 乃執𠄎(鄙)寡(寬)/亞(惡)」 구절은 「故南尸(夷)」에서 문장을 끊어 읽고, 「故」자는 ‘합병하다’의 뜻이며, 왕이 史俗과 史密에게 동쪽지역을 평정하고 南夷를 합병하라는 뜻이다. 「

89) 容庚, 앞의 책, 「1211 廬」, 529쪽 참고.

膚(盧)虎會杞尸(夷)舟尸(夷)는 南夷인 盧族과 虎族이 東夷인 杞夷와 舟夷가 군사적인 강화는 위하여 협력하는 내용으로, 「會」자는 ‘단합하다’의 뜻이다. 「藹不折」은 「藹不折」로, ‘소란을 피우고 (주나라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廣伐東或(國)」 구절과 「齊白(師)·族土(徒)·述(遂)人」의 구절은 분리하여 읽어야 하고, 「乃執鬲(鄙)寡(寬)亞(惡)」은 「動詞述語(執)+冠形語(鄙)+관형어(寡(寬))+目的語(亞)」의 구조로, 盧族과 虎族이 杞夷와 舟夷와 단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周나라를 받들지 않으며 함부로 동쪽 지역을 침범하자, 齊師·族徒과 遂人이 변방 寬 지역의 武官을 잡아들인 내용이다.

### < 參考文獻 >

- 吳鎮烽, <史密簋銘文考釋>, 《考古與文物》, 1989:3.  
 王輝, <史密簋釋文考地>, 《人文雜誌》, 1991:4.  
 陳全方·尚志儒, <史密簋銘文的幾個問題>, 《考古與文物》, 1993:3.  
 李仲操, <史密簋銘文補釋>, 《西北大學學報》, 1990:1.  
 李學勤, <史密簋銘所記西周重要史實考>,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1:2.  
 張懋鎔 等人, <安康出土的史密簋及其意義>, 《文物》, 1989:7.  
 \_\_\_\_\_, <史密簋與西周鄉遂制度>, 《文物》, 1991:1.  
 沈長云, <由史密簋銘文論及西周時期的華夷之辨>, 《河北師院學報》1994:1.  
 方述鑫, <史密簋銘文中齊師族徒遂人—兼論西周時代鄉遂制度與兵制關係>, 《四川大學學報》, 1998.  
 王雷生, <由史密簋銘看姜姓萊·鬲族的東遷>, 《考古與文物》, 1995:4.  
 李啓良, <陝西安康市出土西周史密簋>, 《考古與文物》, 1989:3.  
 張永山, <史密簋銘與周史研究>, 《盡心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11.

- 林楠春,《史密簋銘文匯釋》,《青年文學家·語言研究》,2011:11.
- 劉雨,〈近出殷周金文綜述〉,《故宮博物院院刊》,2002:3.
- 周法高,《金文詁林》,香港中文大學,1975.
-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上海書店出版社,1999.
- 楊樹達,《積微居金文說》(增訂本),中華書局,1997年12月.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殷周金文集成》,中華書局,1984~1994.
- 彭裕商,《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巴蜀書社,2003.
- 劉啓益,《西周紀年》,廣東教育出版社,2002年.
- 張光直 等著,《商周青銅器與銘文的綜合研究》,史語所專刊之六十二,1973年.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古文字詁林》,上海教育出版社,2002.
- 姜文奎,《從彝銘研討西周王年》,臺灣大屯出版社,2001.
- 朱鳳瀚 張榮明 編,《西周帝王年代研究》,貴州人民出版社,1998.
- 陳初生 等編著,《古文字讀本》,語文出版社,1989.
- 陳初生,《金文常用字典》,陝西人文出版社,1987.
- 王輝,《中國古文字導讀-商周金文》,文物出版社,2006.
- 徐中舒 主編,《漢語古文字字形表》.
- 周寶宏 著,《近出西周金文集釋》,天津古籍出版社,2005.
-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中華書局,1986.
- 容庚 編著,張振林·馬國權 摹補,《金文編》,中華書局,1985.
- 崔南圭 著,《西周金文十八品 고석과 임서》,書藝文人畫,2007.
- \_\_\_\_\_,《중국 고대 금문의 이해-殷商兩周 青銅器 金文 100篇해설》,신아사,2009年.
- \_\_\_\_\_,《西周金文精選三十三篇》,書藝文人畫,2010年.
- \_\_\_\_\_,《중국 고대 금문의 이해II-대만고궁박물관소장 西周金文해설》,신아사,2010年.

<中文提要>

西周中期共懿王时期史密簋于1986年，出土陕西安康县城东王井沟。簋底有铭文，每行10字，十分整齐，加上合文1字，重文2字，共计93字。目前已有诸多学者对史密簋的铭文进行了考察并加以分析。本文在其他研究的基础上，主要从「故」、「會」、「藿不阡」的意义角度进而加强分析，并进一步对「廣伐東或(國)齊自(師)族土(徒)述(遂)人乃執鬲(鄙)寬亞(惡)」句的句式进行考察，从而对解释史密簋的铭文之义做出更准确地分析。

史密簋铭文记载了周王朝与东南地区的夷人长期斗争的史实。具体内容可以解释为：周王命令大臣史密、师俗二人东征，合并南夷。虎族和卢族联合杞夷和舟夷加强军力，齐师族徒及遂人捉拿寬地武官。师俗率领 齊師和遂人从左侧攻击長必，史密统率族人·釐伯·燹 以及 眉族从右侧相助，合而攻下長必，俘虏百余人。史密故做此簋谢天子恩惠，文德兼备，故在父亲乙伯祭祀时使用。此器物祖上辈辈流传，永藏至今。

주제어 : 史密簋, 銘文, 斷代, 共王, 懿王, 南夷, 東夷, 師俗, 史密

